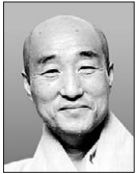


일주 문



금오복지관 지역사회복지축제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은 10월 22-24일 주민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회 지역사회복지축제'를 개최했다.



적십자 박애당 금장 수상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03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 박애당 금장'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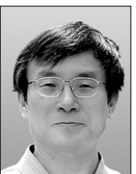
'구하 스님 불교운동사료집' 봉정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0월 31일 <축산 구하 대종사 민족불교운동사료집> 발간 봉정식을 봉행했다.



호국순직경찰관 추모위령제
부천 대덕사 주지 성일 스님은 11월 17일 오전 10시 부천남부경찰서 법당에서 제18회 호국순직경찰관 추모위령제를 봉행한다. (011)356-2028



화성 신홍사 35년 중창불사 회향
화성 신홍사 주지 성일 스님은 10월 26일 35년 중창불사 회향기념 및 1000일 기도 입제식을 봉행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임명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는 10월 29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광동중 명상수길 및 법사실 개관
광동중학교 이학송 교장은 개교 63주년을 맞아 명상수길 조성 및 법사실 개관을 개최한다. (031)571-5392

자신의 수술비 신도 위해 쾌척

미륵암 청운 스님

끝반이 찍어가는 아픔에도 독거어르신에게 수술비를 양보한 스님이 있어 화제다. 청운 스님(조동종 남해 미륵암 주지·사진)이 그 주인공. 청운 스님은 2005년부터 대퇴부(고관절)에 무릎성 괴사를 앓아왔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경산대병원 주치의의 소견을 받은 것은 지난 9월. 하지만 스님은 신도 가운데 한 독거 어르신(강박아씨·71)



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수술비 1000만원을 쾌척했다. 스님은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역 어르신들의 입까지 막을 순 없었다. 청운 스님은 "이 한 몸은 한번 가면 없어진다. 부처님들이 잘 돼야 하지..."라며 말을 흐렸다. 노덕현 기자

“재가신행·교육에 매진 제2도약 기반 마련”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제2대 안동일 이사장

“초대 설립자故 김재일 이사장의 불교정신과 설립이념을 계승하고 제2도약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제2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안동일 이사장(70·사진)은 “창립 26년, 청년기에 접어든 동산은 지도자를 잃는 큰 시련을 겪었다. 동산이 이러한 아픔을 딛고 불교계 대표적 재가신행·교육단체로 발돋움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안동일 이사장은故 김재일 이사장과 함께 전국영불만일회와 붓다클럽 등을 이끌어온 동산반야회 역사의 산증인이다. 변호사인 안동일 이사장이 동산반야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동산불교대

학이 두 돌을 맞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동일 이사장은 “1993년 아버지께서 타계하신 후 불교에 뜻이 생겨 송광사로 4박5일동안 단기출가했다. 서울에 올라와 조계사 근처에 불교를 공부하는 곳을 찾다가 불교계 최초로 2년제 교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동산불교대학을 발견했다”고 회상했다.
안 이사장은 그 이후 법조인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불교대학 2기를 졸업하고, 붓다클럽 초대총재를 맡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에故 김재일 이사장은 작고하기 한 달 전인 5월경 안동일 이사장을 찾아 명예이사장과 고문 등을 맡아 달라며 동산의 미래를 부탁했다.

안 이사장은 “불교는 신행(수행)과 교육 그리고 포교가 함께 가야한다”며 동산 비전으로 ▲<금강경> <화엄경> 영어강좌 등 청년교육프로그램 개발 ▲다각화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전법수행도량 대아미타사 완공 ▲정부, 포교원 협조 강화를 통한 대학 제도보장을 제시했다.
동산반야회는 이를 위해 11월 6일 취임식을 기해 지도위원(스님 15명, 재가자 17명), 자문위원(40여 명)을 공표하고, 부이사장, 고문, 재정 운영위원직을 마련해 미래발전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일 이사장은 “3년 임기동안 김재일 법사가 떠난 동산을 안정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사장 부재 시에도 운영되는 체계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동산이 될 것”이라며 동산의 행보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약자 위한 각종 사업 전개”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신임원장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10월 28일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은영 전 의원(민주당·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이 불교여성개발원 신임원장 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은영 원장은 17대 국회에서 템플스테이사업, 전통사찰보존 등 불교계 문제와 관련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독실한 불자다. 정치적 쟁점이 됐던 '10·27 법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하기도 했다.
“대학 재학시절, 집 근처에 대원정사가 새로 문을 열면서 '자아를 발견해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자'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 문구에 끌려 야간불교 대학을 수료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지요.”
이 원장은 “불교는 타종교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맞춰 행복을 줄 수 있는 넓은 종교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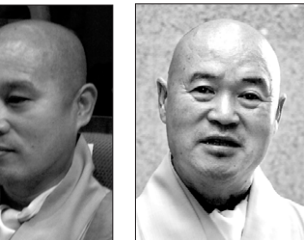
아직까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때문에 이은영 원장은 앞으로 웰다잉운동본부·상담소 설치 등을 불교여성개발원 핵심 사업으로 놓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인생의 불교적 아름다운 회향을 위한 웰다잉운동본부와 불자들이 가정·성폭력 등 모든 고민을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는 불자들의 복지는 물론 노인전문요양원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 예산 확보 등 불교계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원장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진성 기자



‘그들’의 불성밝히기 ‘보람’

국민포장 지행 스님, 총리표창 현각 스님

“저뿐만이 아닌 교정에 힘쓴 모든 분들에게 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0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국민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지행 스님(포천 보문원·사진 왼쪽)과 현각 스님(원주 성불사·사진 오른쪽)은 한 목소리로 수감소감을 밝혔다.
지행 스님은 1989년부터 공주교도소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수감자들의 합동 생일법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우한 수감자에게 영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1979년부터 경기도 인근 신명교육대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군포교 활동에도 활발하다.
지행 스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장애인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수감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은 그들뿐 아니라 불교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1978년부터 원주교도소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재소자 취업을 위해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 년에 한두 번 재소자들과 함께 구룡사(원주시)를 방문, 법회를 봉행하고 주위를 산책하는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에게 큰 호응으로 얻고 있다. 현각 스님은 “불교를 받아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수감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때로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포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 연합체육대회 개최



백제불교회관 재학생 및 동문회,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신행단체는 10월 26일 대전 공무원교육원 잔디광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신남축구와 청신녀발아구 경기 장기자랑으로 이어졌다. 해철총정지장

충북비구니회, 37사단 장병 수계법회



충북비구니회(회장 모정은)는 10월 26일 증평 호국충용사(주)법사실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현인 스님(인심사 주지) 등 충북비구니회 스님들과 총부 포교사회 포교사들이 참석해 장병 150명에게 수계했다. 해철총정지장

전북시암·신도단체련 이웃 위한 바자회



전북시암연합회(회장 원형, 금산사 주지)와 전북신도단체연합회(회장 김백희)는 10월 23-25일 전주시 경원동 옥성문화센터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복지시설과 NGO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전북지장

장덕사 수월관세음보살 입상 점안법회



순창 장덕사(주지 정영환)는 10월 25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월관세음보살 입상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인 입상 외에 각각 폭 17m의 석가모니 열반상과 고형상 등을 자연 비위에 조성했다. 조동제전북지장

한국불교차인회 창립총회



한국불교차인회(준비위원장 허재삼)는 11월 2일 오후 1시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연승기자

Advertisement for '100 Days of Buddhist Practice' (재가불자 100일 동안거 안내). Includes details about the 11th and 12th days of practice, starting on Nov 12th (Lunar 10th 15th). Location: Ulsan-gwanggyo-si, Ulsan-gun, Sangnam-myeon, Bangiri 1079. Contact: (055) 381-6631~2.

Advertisement for '1st Anniversary of the World Peace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창종 1주년 기념 세계 평화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on Nov 16th (Lunar 10th 19th) at 2 PM. Location: Ulsan-gwanggyo-si, Gyeongju-gu, Oryu-dong 155-2. Contact: (032) 518-1588.